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 2001년~2010년 발행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0

송 정 숙(Jung-Sook Song)**

< 목 차 >

I. 서론	2. 생산 대학 분석
II. 선행연구 검토	3. 생산 학과/전공 분석
III. 문헌정보학 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분석	4. 주제 분석
1. 발행연도 분석	IV.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문헌정보학 분야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발행연도, 생산대학, 학과나 전공, 주제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석사학위논문은 1,296편, 박사학위논문은 143편, 합계 1,439편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생산되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석사학위논문은 약 130편, 박사학위논문은 14편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학위논문의 규모는 2000년대 이전에 비해 4배로 팽창하였으며, 대학원 교육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30개 대학에서 석사학위논문을, 13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생산하였다. 학위논문의 생산 규모는 중앙대, 연세대·성균관대, 부산대, 충남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생산한 대학원의 학과나 전공을 보면, 1,439편 가운데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생산한 학위논문은 939편이고,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에서 생산한 논문은 500편으로 2 : 1의 비율이다. 학위논문의 주제를 보면, 정보서비스, 정보학,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서지학, 기록학,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 및 도서관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학별 학위논문의 주제분야를 살펴본 결과 대학별 특색도 파악할 수 있었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석·박사 학위논문, 문헌정보학 연구현황,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문헌정보학 대학원교육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research activity as represented i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rom 2001 to 2010. This study explores the year of publication, the university of publication, the department/major of publication, and subject by examining recent trends in theses and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LIS, and comparing the results to previously reported by Sohn, Jung-Pyo, for the period of 1959 to 2002. Conclusions are 1) The finding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quantitative progress is being mad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2000s. 2) In comparison to previous study, average number of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per year increased four times. 3) The number of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on the subject area of information services were increased.

Keywor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 접수일: 2010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7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I. 서론

대학의 주된 기능은 교육과 연구이다. 교육은 이미 생산된 지식을 후속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과 과정은 학위논문의 집필을 통해 학습하며,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문연구자가 된다. 이러한 전문연구자들이 문헌정보학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이 확산된다.

문헌정보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단행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술지논문과는 달리 학위논문 특히, 박사학위논문에서 연구자는 학계에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던 미개척분야에서 연구주제를 채택하여 독창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독자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학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¹⁾ 따라서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위논문은 1957년에 연세대학교에 대학원 석사과정²⁾이 처음 개설되고 난 2년 후인 1959년에 석사학위논문이 리재철에 의해 처음 생산되었고, 1974년에 성균관대학교에 박사과정이 개설된 4년 후인 1978년에 박사학위논문이 리재철, 이춘희, 천혜봉에 의해 처음 생산되었다. 석사학위논문은 1959년부터 2010년까지 52년 동안 2,600여 편, 박사학위논문은 1978년부터 2010년까지 33년 동안 400여 편, 합계 3,000여 편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되었다. 여기에 기록관리학 전공이나 독서교육전공 등 인근 전공이나 학과에서 생산한 학위논문을 포함하면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관련 학위논문은 4,000여 편 이상이다.

1959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문헌정보학 분야 학위논문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2003년에 손정표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²⁾.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대학원 문헌정보학과나 특수대학원 사서교육전공 등에서 생산된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방법은 '도서관, 문헌정보학, 정보학, 서지학, 장서'를 키워드로 한국학술정보센터(KERIS)에서 서지정보를 검색하였고, 여기에 국회도서관에서 '도서관학, 문헌정보학'을 전공분야로 하여 서지정보를 보충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 후 국회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 학위논문을 생산한 대학의 도서관이나 학위논문을 소장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원문데이터베이스 또는 개별논문의 인준지와 대조하여 학위논문의 저자, 제목, 소속 학과나 전공, 학위수여연도 등을 확인하여 목록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논문도 보충하였다. 이렇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문헌정보학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의 서지정보를 망라적으로 취합하였다.

1) Umberto Eco, 논문작성법 강의, 김운찬 옮김(서울 :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4), p.19.

2)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2003, 12), pp.21-42.

문헌정보학의 주제 분류는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연구 경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손정표(2003b)³⁾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분류기준을 준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의 발행연도, 생산 대학, 학과나 전공, 주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관련 전문 연구인력의 배출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주제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지 등의 연구경향과 관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과에서 도서관과 문헌정보 현상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1959년에 시작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에 관한 학위논문 생산이 50여년이 지난 2010년에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일은 문헌정보학 연구를 한층 심화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 문헌정보학의 연구성과인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가운데 이 모두를 분석한 연구는 없고, 간혹 두 가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 한 가지를 분석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두 가지를 분석한 연구는 문경민(1993)의 연구가 유일하다.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⁵⁾ 가운데 학회지를 분석한 연구는 한상완·조인숙(1996), 정진식(2001), 이명희(2002), 손정표(2003a), 오세훈(2005)의 연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4개 학회, 즉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상완·조인숙(1996)이 유일하다. 이치주(2002)는 학회지가 아니라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서관문화』의 문헌정보학잡지, 즉 전문기관지를 분석하였고,⁶⁾ 손정표(2003a)는 학

3) 상계논문.

4) 문경민은 1950년대 말부터 1991년까지 생산된 석·박사 학위논문 589편과 3개 학회지 발표논문 303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문경민,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도서관학과, 1993).

5) 한상완, 조인숙(1996)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생산된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지 게재 논문을, 정진식(2001)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게재논문 339편을, 이명희(2002)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된 3개 학회지 게재 논문 597편을, 오세훈·이두영(2004)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생산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298편을, 오세훈(2005)은 1946년부터 2004년까지 생산된 학술지논문 2,571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한상완, 조인숙,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 도서관, 제51권, 제1호(1996). ;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 오세훈, 이두영,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11권(2004). ; 오세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 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6) 이치주(2002)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된 문헌정보학잡지(『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서관문화』) 게재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회지, 대학기념논문집, 전문기관지 등 학술지를 망라하여 분석하였다.⁷⁾ 단행본을 분석한 연구는 최희곤(1999)이 유일하다.⁸⁾

문헌정보학의 연구 성과 가운데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	발행년	제목	분석 대상	기간	게재지
1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박사 학위논문 589편과 3개 학회지 발표논문 303편	1950년대 말~1991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도서관학과
2	김길자	1995	우리나라 석·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	문헌정보학관련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총 521편	1959~1992.2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3	손정표	2003b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석·박사 학위논문 1,695편(석사 1,526편, 박사 169편)	1959~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위 <표 1>에서 보듯이, 문헌정보학 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문경민(1993), 김길자(1995),⁹⁾ 손정표(2003b)¹⁰⁾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문경민(1993)의 연구에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포괄하여 분석하고 있어서 이 연구보다 분석대상이 광범하고, 김길자(1995)와 손정표(2003b)가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김길자는 1959년부터 1992년 전반기까지 나온 국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학위논문 543편 중 입수하지 못한 22편을 제외한 521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문헌정보학 연구의 연대별 분포를 보면 1979-1988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 연구의 주제영역별 분포를 보면 정보학영역과 도서관경영 및 행정영역, 기초이론영역의 연구가 많이 나타난 데 비하여 자료조직, 자료연구영역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학영역의 연구경향은 1969-1978년대에 출현하여 최근에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그 외의 영역에 대한 연구비율은 최근 들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정표(2003b)는 1959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 1,695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1959~2002년 간의 연평균 발표량은 38.5

논문 319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치주,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분야 잡지를 통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년~2000년,” 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2002).

7) 손정표(2003a)는 1957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7개 학회지, 16개 대학 기념논문집 수록논문 2,271편과 3개 전문기관지 게재 논문 597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a).

8) 최희곤(1999)는 1957년부터 1997년까지 생산된 단행본 767종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최희곤,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1999).

9) 김길자, “우리나라 석·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1995.

10) 손정표(2003b), 전계논문.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2002년이 가장 많고, 영역별 연평균 발표량의 순위는 도서관경영, 정보학, 공공봉사, 자료조직, 서지학, 장서개발(관리), 도서 및 도서관사, 문헌정보학기초 순으로, 각 영역의 주제별로는 문헌정보학교육, 도서관경영론 전반, 분류법, 장서개발(관리) 일반, 참고·정보봉사, 분석서지학, 도서관사, 정보검색분야가 각 영역의 타 주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길자의 연구에서는 1992년 2월까지 생산된 학위논문이 분석대상이므로 2002년까지 생산된 학위논문을 분석한 손정표(2003b)의 연구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학위논문 생산이 시작된 1959년부터 2002년까지의 학위논문을 분석한 손정표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문헌정보학 연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문헌정보학 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분석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소재 대학의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문헌정보학교육전공 등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발행연도, 생산대학, 학과나 전공, 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1. 발행연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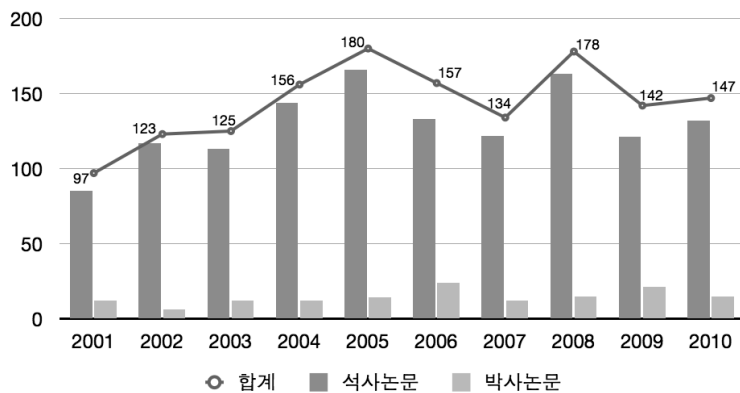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소재 대학에서 생산한 문헌정보학에 대한 석·박사 학위논문의 현황을 발행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발행연도별 학위논문 생산현황

발행연도	석사 학위논문		박사 학위논문		합 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2001	85	6.56	12	8.39	97	6.74
2002	117	9.03	6	4.20	123	8.55
2003	113	8.72	12	8.39	125	8.69
2004	144	11.11	12	8.39	156	10.84
2005	166	12.81	14	9.79	180	12.51
2006	133	10.26	24	16.78	157	10.91
2007	122	9.41	12	8.39	134	9.31
2008	163	12.58	15	10.49	178	12.37
2009	121	9.34	21	14.69	142	9.87
2010	132	10.19	15	10.49	147	10.22
합계	1,296	100.00	143	100.00	1,439	100.00
평균(년)	129.6		14.3		143.9	

〈표 2〉에서 보듯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문헌정보학 분야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생산한 학위논문은 모두 1,439편이다. 이 가운데 석사학위논문은 1,296편으로 전체의 90%이고, 박사학위논문은 143편으로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여 석사학위논문의 수가 박사학위논문의 9배나 된다. 평균적으로 보면, 석사학위논문은 1년에 129.6편, 박사학위논문은 1년에 14.3편 정도가 생산되었다.

〈표 2〉의 발행연도별 학위논문 생산현황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발행연도별 학위논문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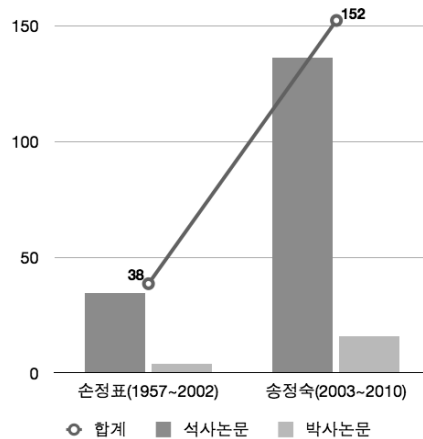
위 〈그림 1〉에서 보듯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위논문 생산량은 2001년 97편에서 매년 상승하여 2005년에 180편으로 최고점을 이루고 점점 줄어들어 2007년에는 134편이 생산되었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는 178편으로 2005년의 수준에 근접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140편대를 유지하고 있다. 석사학위논문도 2001년 85편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 166편으로 정점을 이루고 다시 줄어들다가 2008년에 163편으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는 120-130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는 2006년의 24편을 정점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2009년에 21편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분야 학위논문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은 전문연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인데, 졸업 후의 진로를 보면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소가 많지 않고 대학으로 진출하는 것도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문헌정보학과가 거의 신설되지 않을 뿐더러 국내 대학은 이즈음 국제화를 강조하면서 영어강의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박사학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 박사과정이 다소 위축되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표 2〉의 생산현황에 나타난 연구 성과 가운데 손정표(2003b)의 연구와 중복되는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간의 성과를 1957년부터 2002년까지 44년 간의 성과를 분석한 손정표(2003)의 연구와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학위논문 생산현황의 비교

연구자	발행연도(기간)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합계	
		논문수	평균(년)	논문수	평균(년)	논문수	평균(년)
손정표(2003b)	1957-2002(44년)	1,526	34.68	169	3.84	1,695	38.52
송정숙(2010)	2003-2010(8년)	1,093	136.63	126	15.75	1,219	152.38



〈그림 2〉 학위논문 생산현황의 비교(연평균)

위 〈표 3〉에서 보듯이, 손정표(2003b)의 연구에 의하면, 1957년부터 2002년까지 44년 동안 생산된 석사학위논문은 총 1,526편으로 연평균 34.68편이 발행되었고, 박사학위논문은 총 169편으로 연평균 3.84편이 발행되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생산된 석사학위논문은 총 1,093편으로 연평균 136.63편이 발행되었고, 박사학위논문은 총 126편으로 연평균 15.75편이 발행되었다. 이로 볼 때 2003년 이후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연평균 석사학위논문은 3.9배, 박사학위논문은 4.1배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생산 대학 분석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논문 1,439편을 대상으로 논문을 생산한 대학별, 발행연도별로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대학별·연도별 학위논문 생산현황

대학명	지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생산논문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계	순위
강남대	용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3	0	3	28
경기대	수원	3	0	0	0	3	0	2	0	5	0	8	1	5	2	5	1	2	2	7	1	40	7	47	14
경북대	대구	0	0	3	0	1	0	2	0	2	0	2	2	7	0	4	1	4	1	1	0	26	4	30	15
경성대	부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2	0	2	30
계명대	대구	6	0	4	0	8	0	6	0	7	0	8	1	7	0	10	0	2	1	8	2	66	4	70	7
공주대	공주	2	0	3	0	2	0	4	0	10	0	7	0	6	0	7	0	8	0	15	0	64	0	64	9
대구 가톨릭대	대구	1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3	0	3	28
대구대	대구	0	0	1	0	1	0	0	0	2	0	1	0	1	0	4	0	1	0	0	0	11	0	11	23
대진대	포천	0	0	0	0	0	0	6	0	0	0	1	0	4	0	3	0	4	0	1	0	19	0	19	19
동덕여대	서울	2	0	1	0	3	0	0	0	2	0	1	0	2	0	0	0	0	0	0	0	11	0	11	23
명지대	서울	1	0	0	0	1	0	0	0	1	0	0	0	1	0	4	0	2	0	3	0	13	0	13	22
부산대	부산	5	2	3	1	16	1	17	1	10	2	9	2	6	0	14	1	5	0	2	0	87	10	97	4
상명대	서울	0	2	0	1	1	0	1	2	0	0	1	1	0	1	1	1	1	0	2	0	7	8	15	20
서울여대	서울	0	0	3	0	0	0	0	0	4	0	1	0	0	0	0	0	1	0	1	0	10	0	10	25
성균관대	서울	11	1	22	1	8	2	15	2	29	1	11	6	14	0	16	0	6	2	14	3	146	18	164	2
숙명여대	서울	3	0	9	0	8	0	6	0	4	0	3	0	3	0	6	0	2	0	5	0	49	0	49	12
신라대	부산	1	0	6	0	2	0	7	0	2	0	14	0	6	0	10	0	6	0	8	0	62	0	62	10
연세대	서울	18	1	12	2	8	5	9	4	9	6	14	4	15	4	13	1	16	4	13	6	127	37	164	2
이화여대	서울	4	1	14	0	5	1	8	1	6	1	6	2	4	0	5	3	5	0	5	2	62	11	73	6
전남대	광주	0	0	1	0	3	0	3	0	5	0	7	0	5	2	10	1	9	1	10	0	53	4	57	11
전북대	전주	4	0	5	0	4	0	13	0	9	0	9	0	7	1	5	1	6	2	2	0	64	4	68	8
전주대	전주	1	0	3	0	2	0	2	0	1	0	1	0	0	0	2	0	0	0	3	0	15	0	15	20
충부대	충남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0	1	0	0	0	4	0	4	27
중앙대	서울	6	5	11	1	18	3	20	2	17	3	14	3	15	2	19	3	13	3	15	0	148	25	173	1
천안대	천안	0	0	0	0	0	0	0	0	24	0	0	0	0	0	0	0	0	0	0	0	24	0	24	18
청주대	청주	7	0	4	0	2	0	4	0	3	0	0	0	2	0	1	0	2	0	1	0	26	0	26	17
충남대	대전	5	0	7	0	10	0	6	0	5	1	7	2	3	0	11	2	9	4	8	1	71	10	81	5
한남대	대전	0	0	1	0	2	0	0	0	1	0	0	0	0	0	0	0	1	0	1	0	6	0	6	26
한성대	서울	0	0	2	0	1	0	3	0	3	0	1	0	5	0	4	0	7	1	2	0	28	1	29	16
한양대	서울	5	0	2	0	4	0	10	0	5	0	6	0	3	0	6	0	3	0	5	0	49	0	49	12
계(논문)		85	12	117	6	113	12	144	12	166	14	133	24	122	12	163	15	121	21	132	15	1,296	143	1,439	
계(대학)		18	6	21	5	23	5	20	6	24	6	23	10	22	7	24	10	26	10	23	6	30	13		

위 〈표 4〉를 볼 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석사학위논문은 30개 대학에서 1,296편을 생산하였고, 박사학위논문은 13개 대학에서 143편을 생산하였다.

2001년에는 석사학위논문은 18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논문은 부산대, 상명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의 6개 대학에서 생산되었으나, 2010년에는 석사학위논문은 23개 대학에서 132편, 박사학위논문은 6개 대학에서 15편을 생산하였다.

전국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은 33개교인데, 〈표 4〉에서 보듯이 석사학위를 배출하는 30개 대학 가운데 학부에 문헌정보학이 개설되지 않은 2개교¹¹⁾를 제외하면 전체의 85%인

11) 학부에 문헌정보학과가 없으나, 대학원에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2개교가 있으니, 한양대학교, 천안대학교

28개교가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전체의 39%에 달하는 13개교가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학위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부중심대학, 즉 교육중심대학과 대학원중심대학, 즉 연구중심대학으로 대학을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학부가 개설된 대부분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대학원 교육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위 <표 4>에 나타난 현황을 토대로 대학별 학위논문 생산현황을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대학별 학위논문 생산현황

배출논문	대학수(논문수)	%	대학명(논문수)
1~10	6(28)	1.95	경성대(2), 강남대(3), 대구가톨릭대(3), 중부대(4), 한남대(6), 서울여대(10)
11~20	6(84)	5.84	대구대(11), 대진대(19), 동덕여대(11), 명지대(13), 상명대(15), 전주대(15)
21~30	4(109)	7.57	천안대(24), 청주대(26), 한성대(29), 경북대(30)
31~40			
41~50	3(145)	10.08	경기대(47), 숙명여대(49), 한양대(49)
51~60	1(57)	3.96	전남대(57)
61~70	3(194)	13.48	공주대(64), 신라대(62), 전북대(68)
71~80	2(143)	9.94	계명대(70), 이화여대(73)
81~90	1(81)	5.63	충남대(81)
91~100	1(97)	6.74	부산대(97)
101~110			
111~160			
161~170	2(328)	22.79	성균관대(164), 연세대(164)
171~180	1(173)	12.02	중앙대(173)
181 이상			
합계	30(1,439)	100.00%	

위 <표 5>에서 보듯이, 문헌정보학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생산한 대학은 전국 174개(2008년 기준)¹²⁾ 대학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에 관한 학위논문을 생산하였다.

문헌정보학에 대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가장 많이 생산한 대학은 중앙대학교로서 전체 1,439편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173편을 생산하였고, 두번째는 164편을 생산한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이다. 이 세 대학이 생산한 학위논문은 501편으로 30개 대학 학위논문 생산량인 1,439편의 약 35%에 달한다.

이다. 한양대학교는 교육대학원에 사서교육전공이, 천안대학교는 문헌정보대학원에 문헌정보학전공과 문헌정보교육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12) 교육통계서비스, "2008년 대학시도별 설립별 학교수," 대학통계, <<http://cesi.kedi.re.kr/index.jsp>> [인용 2009. 9. 30].

30개 대학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한 문헌정보학 분야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의 비율은 1,296 : 143으로서 대략 9 : 1이다.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의 비율을 박사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중앙대는 148 : 25로서 약 5.9 : 1, 연세대는 127 : 37로서 3.4 : 1, 성균관대는 146 : 18로서 8.1 : 1, 부산대는 87 : 10로서 8.7 : 1, 충남대는 71 : 10으로 7.1 : 1, 이화여대는 62 : 11로서 5.6 : 1의 비율이다. 이로 볼 때 박사학위논문의 생산 비중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성균관대, 부산대의 순으로 높다. 이와 달리 석사학위논문 생산에 비해 박사학위논문 생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학은 상명대이다.¹³⁾ 상명대에서 생산된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은 각각 7편, 8편으로서 대략 1 : 1.1의 비율이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생산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논문의 대학별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대학별 석사학위논문 생산현황

배출논문	대학수(논문수)	%	대학명(논문수)
1~10	7(35)	2.70	경성대(2), 강남대(3), 대구가톨릭대(3), 중부대(4), 한남대(6), 상명대(7), 서울여대(10)
11~20	5(69)	5.32	대구대(11), 동덕여대(11), 명지대(13), 전주대(15), 대전대(19)
21~30	4(104)	8.02	천안대(24), 경북대(26), 청주대(26), 한성대(28)
31~40	1(40)	3.09	경기대(40)
41~50	2(98)	7.56	숙명여대(49), 한양대(49)
51~60	1(53)	4.09	전남대(53)
61~70	5(318)	24.54	신라대(62), 이화여대(62), 공주대(64), 전북대(64), 계명대(66)
71~80	1(71)	5.48	충남대(71)
81~90	1(87)	6.71	부산대(87)
91~100			
101~110			
111~170	3(421)	32.48	연세대(127), 성균관대(146), 중앙대(148)
171 이상			
합계	1,296	100.00	

위 <표 6>에서 보듯이 문헌정보학 분야 석사학위논문은 중앙대 148편, 성균관대 146편, 연세대 127편, 부산대 87편, 충남대 71편의 순으로 생산되었다. 이들 5개교에서 생산된 석사논문의 합이 579편으로 전체의 40%로 2/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계명대 66편, 공주대와 전북대 각각 64편, 이화여대와 신라대 각각 62편의 순으로 석사학위논문이 생산되었다.

석사과정은 1950년대에는 1957년에 연세대, 1959년에 이화여대의 2개교에 개설되고 난 이후 1960년대에는 주춤하다가 1970년대에는 1971년에 성균관대, 1973년에 중앙대, 1978년에 경북대의

13) 상명대는 석사과정이 1988년에, 박사과정은 1992년에 개설되었다.

4개교에 개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1982년에 청주대, 1983년에 숙명여대, 1988년에 상명대·서울여대, 1989년에 계명대·전남대·명지대·부산대의 8개교에 개설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1년에 충남대, 1993년에 전주대, 1995년에 동덕여대, 1996년에 대구대·대구가톨릭대·한남대, 1998년에 한성대, 1999년에 전북대·경기대의 9개교에 개설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1년에 중부대, 2002년에 대전대, 2004년에 강남대, 2005년에 경성대, 2007년에 광주대의 5개교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대학원 교육이 보편화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원 석사과정 운영의 역사가 오렐수록 석사학위논문의 생산도 활발함을 볼 수 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생산된 박사학위논문의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대학별 박사학위논문 생산현황

배출논문	대학수(논문수)	%	대학명(논문수)
1~10	9(52)	36.36	한성대(1), 경북대(4), 계명대(4), 전남대(4), 전북대(4), 경기대(7), 상명대(8), 부산대(10), 충남대(10)
11~20	2(29)	20.28	이화여대(11), 성균관대(18)
21~30	1(25)	17.48	중앙대(25)
31~40	1(37)	25.87	연세대(37)
41 이상			
합계	143	100.00	

위 <표 7>에서 보듯이, 박사학위논문의 생산은 연세대 37편, 중앙대 25편, 성균관대 18편, 이화여대 11편, 부산대·충남대 10편의 순으로 활발하다. 문헌정보학과에서 박사과정의 개설연도를 보면 1970년대에는 1974년에 성균관대가 유일하고 1980년대에는 1980년에 연세대, 1983년에 중앙대, 1988년에 이화여대의 3개교에 개설되어 1980년대까지는 박사과정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는 1992년에 상명대, 1993년에 부산대, 1999년에 전남대의 3개교에 개설되었고, 2000년대에는 2000년에 경북대와 계명대, 2001년에 경기대, 2002년에 전북대와 충남대, 2006년에 숙명여대와 한성대의 7개교에 개설됨으로써 박사과정교육이 전국적인 분포로 확산되었다. 박사학위논문의 생산량도 박사과정의 연륜과 궤를 같이하여 1990년 이전에 개설된 4개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에 개설된 충남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3. 생산 학과/전공 분석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문헌정보학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 1,439편을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논문을 생산한 학과나 전공¹⁴⁾별 생산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14) 일반대학원은 학부와 같이 학과 단위로 구분되어 있지만 교육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에서는 전공체제로 유지되

〈표 8〉 학과/전공별 학위논문 생산현황

학과 / 전공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합계		비고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796	61.42	143	100	939	65.25	도서관학과, 정보과학대학원 포함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500	38.58	-	-	500	34.75	도서관교육, 문헌정보교육 전공 포함
합계	1,296	100	143	100	1,439	100	

위 〈표 8〉에서 보듯이, 문헌정보학에 관한 1,439편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배출한 대학원과 대학원의 학과나 전공을 분석한 결과, 일반대학원은 939편으로 전체의 65.3%, 특수대학원은 500편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한다. 이로 볼 때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에서 생산한 학위논문의 비율은 대략 2 : 1의 비율이다.

석사학위논문의 경우는 일반대학원에서 796편, 교육대학원에서 500편을 생산하여 교육대학원의 비율이 약 39%를 차지한다. 근래에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6학점을 더 이수하면 논문을 면제해 주는 대학도 일부 있으므로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이나 문헌정보교육전공의 석사학위취득자와 논문의 편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주제 분석

문헌정보학의 주제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손정표(2003b)의 연구와 문헌정보학 연구 변화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손정표의 분류를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 손정표는 문헌정보학을 8개 분야, 75개 대주제, 125개 소주제로 나누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연구 분야를 기록학 분야를 추가하여 9개의 연구분야로 나누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기록학 또는 기록관리학의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1999년부터 대학원에 기록관리학 전공을 개설함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서도 기록관리학에 관한 학위논문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독립된 분야로 설정하였다.

문헌정보학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 1,439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주제별 학위논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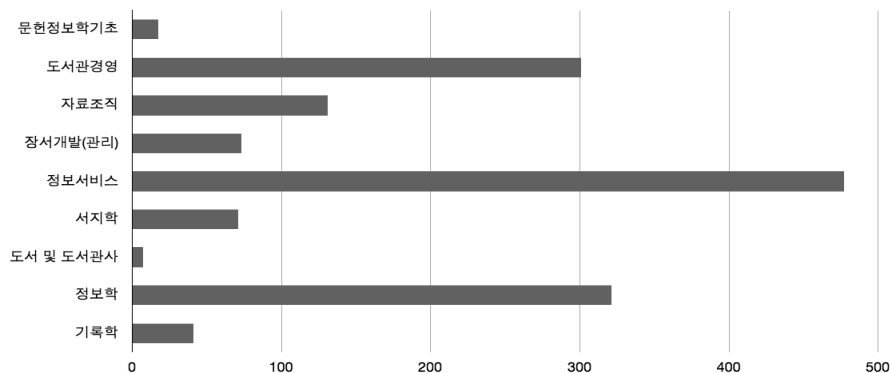
분야	대주제	논문수	%	소계(%)
문헌정보학기초	도서관단체	2	0.14	17 (1.18)
	문헌정보교육	7	0.49	
	문헌정보학이론	8	0.56	

는 경우가 많다.

분 야	대 주 제	논문수	%	소계(%)
도서관경영	건축	10	6.95	301 (20.92)
	계획론	2	0.14	
	도서관경영론	12	0.84	
	도서관관련법규·기준	17	1.18	
	도서관실태	23	1.6	
	도서관측정·평가	14	0.97	
	도서관행정	2	0.14	
	마케팅	7	0.49	
	상호협력, 도서관망	31	2.15	
	예산관리	3	0.21	
	인간관계	26	1.81	
	인사관리	49	3.41	
	자료별관리	2	0.14	
	장서(서고)관리	11	0.76	
	정책및전략론	77	5.35	
	조직론	14	0.97	
지식경영	1	0.07		
자료조직	메타데이터	26	1.81	131 (9.1)
	목록법	41	2.85	
	분류법	53	3.68	
	색인작성법	1	0.07	
	주제분석	10	0.69	
장서개발(관리)	수서업무	3	0.21	73 (5.09)
	장서개발(관리)일반	13	0.9	
	장서개발기준	23	1.6	
	장서관리	4	0.28	
	장서평가	15	1.04	
	정책·방침	15	1.04	
정보서비스	공공봉사일반	2	0.14	477 (33.15)
	대공중관계	13	0.9	
	도서관및정보이용교육	106	7.37	
정보서비스	독서교육	156	10.84	477 (33.15)
	이용실태	16	0.69	
	이용평가	43	2.99	
	일반봉사	34	2.36	
	정보공개, 보호, 보안	3	0.21	
	지역개방	7	0.49	
	참고, 정보봉사	73	5.07	
	특수봉사	25	1.74	
서지학	분석서지학	50	3.48	71 (4.93)
	서지	4	0.28	
	서지학일반	1	0.07	
	체계서지학	16	1.11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분 야	대 주 제	논문수	%	소계(%)
도서 및 도서관사	도서관사	4	0.28	7 (0.49)
	도서및출판사	2	0.14	
	정보	1	0.07	
정보학	계량서지학	8	0.56	321 (22.31)
	데이터베이스	22	1.53	
	도서관자동화	6	0.42	
	디지털도서관	21	1.46	
	이용자인터페이스	20	1.39	
	인용분석	16	1.11	
	자동분류	20	1.39	
	자동색인	4	0.28	
	자동초록, 요약	4	0.28	
	정보(관리)시스템	48	3.33	
	정보(학)이론	7	0.49	
	정보검색	49	3.41	
	정보기술	8	0.56	
	정보이용행태(이용자연구 포함)	78	5.42	
	정보정책	4	0.28	
	참고질의시스템	6	0.42	
	기록학	경영	9	
관리		10	0.69	
디지털아카이빙		2	0.14	
보존		4	0.28	
서비스		5	0.35	
수집		2	0.14	
이용		1	0.07	
조직		7	0.49	
평가	1	0.07		
합계		1,439	100	



〈그림 3〉 주제별 학위논문 현황

위 <표 9>에서 보듯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생산된 문헌정보학 학위논문의 연구분야를 보면, 정보서비스, 정보학, 도서관 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서지학, 기록학,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 및 도서관사의 순이다. 정보서비스는 477편으로 전체의 33%, 정보학은 321편으로 전체의 22%, 도서관경영은 301편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이 세 분야의 합은 1,099편으로 전체의 76%, 즉 3/4을 상회한다. 다음은 자료조직이 131편으로 전체의 9%, 장서개발이 73편, 서지학이 71편으로 각각 전체의 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2000년대 새롭게 등장한 기록학이 41편으로 전체의 약 3%, 문헌정보학 기초가 17편으로 전체의 1%, 도서 및 도서관사가 7편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손정표(2003b)의 연구에 의하면, 2002년까지는 도서관경영, 정보학, 공공봉사, 자료조직, 서지학, 장서개발(관리), 도서 및 도서관사, 문헌정보학 기초 순으로 연구가 활발하였다.¹⁵⁾ <표 9>에 나타난 2000년대의 연구결과를 이와 비교하면, 3대 영역인 정보서비스, 정보학, 도서관 경영 가운데에서는 정보서비스가 3위에서 2000년대에는 1위로 올라섰음을 볼 수 있다. 즉 정보서비스와 도서관 경영 분야가 서로 1위와 3위를 맞바꾸었다. 2위와 4위는 정보학과 자료조직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장서개발과 서지학이 자리를 바꾸었고, 그 뒤를 기록학이 뒤따르고 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문헌정보학과와 사학과가 중심이 되어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을 개설하면서 문헌정보학과에서도 기록관리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도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위논문이 2001년부터 생산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직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에서는 박사학위논문이 2004년, 2008년, 2010년에 각 1편씩 3편밖에 생산되지 않았는데, 문헌정보학과에서 기록관리학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6편이나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주제를 보면, 디지털아카이빙 3편, 기록분류 1편, 기록의 기술 1편, 기록정보 서비스 1편이고, 생산 대학은 연세대에서 4편, 성균관대와 중앙대에서 각 1편씩 생산하였다.

<표 9>에서 보듯이 문헌정보학 학위논문의 대주제를 보면, 가장 연구가 활발한 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한 학위논문 477편 가운데 독서교육 156편,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 106편, 참고, 정보봉사 73편, 이용평가 43편, 일반봉사 34편, 특수봉사 25편의 순이다. 독서교육이 156편으로 정보서비스의 33%, 전체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이 106편으로 정보서비스의 22%, 전체의 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은 주5일제 근무로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급증하고,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0년에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본부가 출범하고, 2002년에는 교육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대책이 발표됨으로써 교육당국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00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자료기반학습, 교사들에게는 도서관활용 수업,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독서교육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

15) 손정표, 전계논문, p.28.

악된다.

특히 독서교육(지도)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교과목이 학부에 개설되어 있지도 않고 전임교수도 없는 대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문헌정보학과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강화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 독서교육 분야는 아직 학부에 독서교육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문헌정보학과나 국어교육과, 교육학과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학원과정에서는 가톨릭대학교와 백석대학교가 독서교육전공을 개설하여 석사학위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 생산되는 독서교육 분야의 학위논문은 문헌정보학과와는 접근하는 시각에서 다른 면은 있지만 독서교육이나 독서지도, 교육매체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독서교육에 관한 학위논문 156편에는 독서치료에 관한 학위논문 64편이 포함되어 있다.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도 2000년대 들어 연구가 활발한 분야로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가 주도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영역이다. 참고, 정보봉사에 관한 학위논문 73편 가운데에는 전자정보서비스에 대한 학위논문이 30편 포함되어 있다. 도서관이 디지털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도서관과 캠퍼스 밖에서도 학술데이터베이스에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전자저널이나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143편의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박사학위논문의 주제 현황

분 야	대 주 제	논문수	%	소계(%)
문헌정보학기초	문헌정보학교육	1	0.70	4 (2.80)
	문헌정보학이론	3	2.10	
도서관경영	건축	3	2.10	23 (16.08)
	계획론	1	0.70	
	도서관측정·평가	5	3.50	
	마케팅	1	0.70	
	상호협력, 도서관망	1	0.70	
	예산관리	1	0.70	
	인간관계	1	0.70	
	인사관리	3	2.10	
	정책및전략론	5	3.50	
조직론	2	1.40		
자료조직	메타데이터	2	1.40	21 (14.69)
	목록법	9	6.30	
	분류법	7	4.90	
	주제분석	1	0.70	

분 야	대 주 제	논문수	%	소계(%)
장서개발	장서개발기준	1	0.70	3 (2.10)
	장서평가	1	0.70	
	정책·방침	1	0.70	
정보서비스	도서관및정보이용교육	10	6.99	31 (21.68)
	독서교육	9	6.30	
	이용평가	4	2.80	
	참고·정보봉사	8	5.60	
서지학	분석서지학	9	6.30	10 (6.99)
	체계서지학	1	0.70	
도서및도서관사	도서관사	2	1.40	2(1.40)
정보학	계량서지학	2	1.40	43 (30.07)
	데이터베이스	1	0.70	
	디지털도서관	7	4.90	
	이용자인터페이스	1	0.70	
	인용분석	2	1.40	
	자동분류	3	2.10	
	자동초록, 요약	1	0.70	
	정보(관리) 시스템	9	6.30	
	정보(학)이론	2	1.40	
	정보검색	8	5.60	
	정보이용행태(이용자연구 포함)	5	3.50	
	정보정책	1	0.70	
	참고질의시스템	1	0.70	
기록학	디지털아카이빙	2	1.40	6 (4.20)
	보존	1	0.70	
	서비스	1	0.70	
	조직	2	1.40	
합 계		143	100	

위 <표 10>에서 보듯이,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논문 143편의 연구 분야를 보면, 정보학, 정보서비스,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서지학, 기록학, 문헌정보학 기초, 장서개발, 도서 및 도서관사의 순이다. 정보학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은 43편으로 박사학위논문 전체의 30%, 정보서비스는 31편으로 22%를 차지하여 이 두 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이 전체의 절반을 남는다.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경영 23편(16%), 자료조직 21편(15%), 서지학 10편(7%), 기록학 6편(4%), 문헌정보학기초 4편(3%), 장서개발 3편(2.10%), 도서 및 도서관사 2편(1%)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생산된 문헌정보학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분야가 정보서비스, 정보학, 도서관 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서지학, 기록학,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 및 도서관사의 순서인 것과 비교하면, 박사학위논문은 정보학 분야가 많고 장서개발 분야가 적은 점이 눈에 띈다.

정보학 분야의 박사학위논문 43편의 주제를 보면, 정보관리시스템이 9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정보검색 8편, 디지털도서관 7편, 정보이용행태 5편, 자동분류 3편의 순이다. 정보학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가장 많이 생산한 대학은 연세대학교로서 정보학 논문의 약 42%에 해당하는 18편을 생산하였다. 다음으로는 중앙대 9편, 성균관대·충남대 각 5편의 순이고 그 외 이화여대, 경북대, 부산대, 상명대, 한성대의 5개 대학에서 6편의 박사학위 논문을 생산하였다. 연세대는 정보(관리)시스템, 정보검색, 자동분류, 인용분석, 계량서지학, 디지털도서관, 참고질의 시스템, 정보학이론 등 정보학의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논문이 생산되었다.

정보서비스 분야의 박사학위논문 31편의 주제를 보면,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에 대한 논문이 10편으로 가장 많고, 독서교육 9편, 참고·정보봉사 8편, 이용평가 4편의 순이다. 정보서비스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은 연세대·중앙대 각 5편, 상명대 4편, 성균관대·부산대·이화여대·전북대가 각 3편이다. 그 외 경기대, 계명대, 전남대의 3개교에서 5편을 생산하였다. 정보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박사학위 논문 생산량의 편차가 큰 정보학 분야와 달리 10개교에서 비교적 고르게 생산되었다.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논문 10편 가운데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논문이 8편이나 되고, 독서교육에 관한 논문 9편 가운데 독서치료에 대한 논문이 6편이나 된다.

도서관경영 분야의 박사학위논문 23편의 주제를 보면, 도서관 측정, 평가와 정책 및 전략론이 각 5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사관리·건축이 각 3편의 순으로 도서관경영 분야의 여러 주제들이 비교적 고르게 연구되고 있는 편이다. 도서관경영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은 경기대·충남대에서 각 4편, 성균관대·중앙대에서 각 3편씩 생산되었다. 그 외 부산대, 이화여대, 상명대, 연세대, 계명대, 전북대의 6개교에서 9편이 생산되었다. 도서관경영 분야도 정보서비스 분야처럼 10개교에서 비교적 고르게 생산되었다.

자료조직 분야의 박사학위논문 21편의 주제를 보면, 목록법이 9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분류법 7편의 순이다. 자료조직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은 연세대 6편, 성균관대 4편, 중앙대에서 3편 생산되었다. 그 외 부산대, 이화여대, 계명대, 전남대, 충남대의 5개교에서 7편이 생산되었다. 자료조직 분야는 정보서비스와 도서관경영 분야와는 다르게 대학별 박사학위 논문 생산량의 편차가 있는 편이다. 2005년 이후 목록법과 메타데이터 영역에서 FRBR 모형을 목록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생산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4편이 생산되었다.

서지학 분야의 박사학위논문 10편의 주제를 보면, 분석서지학 가운데 형태서지학에 관한 연구가 8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서지학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은 경북대 3편, 성균관대·전남대 각 2편씩 생산되었다. 그 외 3개교에서 3편을 생산하였다. 서지학 분야는 생산된 박사학위 논문의 편수도 적을 뿐더러 생산대학도 6개교에 불과하다. 고문헌의 경우는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즈음은 국역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개발 등으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사학위논문 생산량이 많은 대학의 경우에도 연구 분야에 따른 박사학위논문의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대학에 따른 연구경향의 특색이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헌정보학의 다양한 연구분야들이 균형있게 교육하지 아니한 결과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석·박사 학위논문의 생산량이 많은 10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생산한 학위논문을 연구분야별로 분석해 보았다.

중앙대학교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 173편의 구성을 보면, 일반대학원에서 101편, 교육대학원에서 72편이 생산되어 1.4 : 1의 비율이다. 논문의 주제를 보면, 정보서비스 43(19+24)편, 도서관경영 37(16+21)편, 정보학 36(30+6)편, 자료조직 25(20+5)편, 서지학 13(9+4)편, 장서개발 11(3+8)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4개 분야에 고르게 학위논문이 생산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지학 분야가 그 다음을 잇고 있다. 교육대학원 논문은 정보서비스와 도서관경영 영역에서 일반대학원보다 많고, 정보학과 자료조직, 서지학 분야는 일반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보다 논문이 많이 생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 164편의 구성을 보면, 일반대학원에서 86편, 교육대학원에서 78편이 생산되어 1.1 : 1의 비율로 교육대학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이다. 논문의 주제를 보면, 정보서비스 67(26+41)편, 정보학 50(36+14)편, 도서관경영 26(8+18)편, 자료조직 11(9+2)편, 서지학 6(6+0)편, 장서개발 2(0+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서비스와 정보학에 관한 논문이 70%를 상회하여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정보서비스-도서관경영-정보학-자료조직의 순위는 학위논문의 전체적인 순위와 일치한다.

연세대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 164편의 구성을 보면, 일반대학원에서 135편, 교육대학원에서 29편이 생산되어 4.7 : 1의 비율로 일반대학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논문의 주제를 보면, 정보학 72(68+4)편, 정보서비스 30(15+15)편, 도서관경영 24(14+10)편, 자료조직 23(23+0)편, 기록 9(9+0)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학 분야의 논문이 72편으로 44%를 차지하여 이 분야 연구가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서지학 분야의 논문은 한 편도 없는데, 이는 서지학 전공 교수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인다.

부산대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 97편의 구성을 보면, 일반대학원에서 66편, 교육대학원에서 31편이 생산되어 2 : 1의 비율이다. 논문의 주제를 보면, 정보서비스 52(24+28)편, 도서관경영 14(14+10)편, 정보학 13(12+1)편, 장서개발 8(6+2)편, 자료조직 6(6+0)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서비스 분야의 논문이 52편으로 54%를 차지하여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정보서비스 분야의 논문 52편 가운데 독서교육에 대한 논문이 33편인데, 이 가운데 독서치료에 대한 논문이 19편이다. 이를 통해 독서교육 특히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충남대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 81편은 모두 일반대학원에서 생산되었다. 논문의 주제를 보면, 정보학 24편, 도서관경영 21편, 정보서비스 20편, 자료조직 10편, 장서개발 3편의 순으로 나

타났다. 정보학, 도서관경영, 정보서비스가 거의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화여대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 73편의 구성을 보면, 일반대학원에서 67편, 교육대학원에서 6편이 생산되어 11 : 1의 비율이다. 교육대학원 논문이 2003년부터는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는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논문의 주제를 보면, 정보서비스 19(18+1)편, 도서관경영 15(12+3)편, 자료조직 12(11+1)편, 정보학 10(9+1)편, 장서개발 5(5+0)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여러 주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자료조직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계명대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 70편의 구성을 보면, 일반대학원에서 46편, 교육대학원에서 24편이 생산되어 2 : 1의 비율이다. 논문의 주제를 보면, 정보서비스 31(18+13)편, 도서관경영 16(9+7)편, 정보학 14(13+1)편, 장서개발 3(2+1)편, 자료조직 3(2+1)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전북대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 68편의 구성을 보면, 일반대학원에서 45편, 교육대학원에서 23편이 생산되어 2 : 1의 비율이다. 논문의 주제를 보면, 정보서비스 22(17+5)편, 도서관경영 13(8+5)편, 정보학 14(9+5)편, 장서개발 5(3+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서비스 분야의 학위논문 생산이 활발함을 볼 수 있다.

공주대는 64편의 석사학위논문 가운데 정보서비스 41편, 도서관경영 13편, 자료조직 4편의 순이다. 정보서비스에 관한 논문 41편 가운데 독서교육이 23편,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이 10편으로 이 분야의 학위논문생산이 가장 활발하다. 이는 공주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범대학에 학부가 설치되어 있고, 석사과정이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대는 62편의 석사 학위논문 가운데 도서관경영 25편, 정보서비스 21편, 정보학 10편, 장서개발 6편으로 이 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석사과정이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신라대는 도서관경영과 정보서비스 분야의 학위논문 생산이 활발하다.

이렇게 학위논문의 생산이 많은 10개 대학에서 생산한 학위논문의 주제분야를 보았더니 정보학, 자료조직, 장서개발, 서지학 분야는 일반대학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되었고, 정보서비스와 도서관경영은 교육대학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대학에서 학위논문이 가장 활발하게 생산된 연구분야의 순위를 보면, 정보학-정보서비스-도서관경영-자료조직 계열에는 연세대, 정보학-도서관경영-정보서비스-자료조직 계열에는 충남대, 정보서비스-정보학-도서관경영-자료조직 계열에는 중앙대와 성균관대, 정보서비스-도서관경영-정보학 계열은 부산대·계명대·전북대·신라대, 정보서비스-도서관경영-자료조직 계열은 이화여대·공주대가 속한다.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생산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발행연도, 생산대학, 학과나 전공, 주제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석사학위논문은 1,296편, 박사학위논문은 143편 합계 1,439편의 석·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되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석사학위논문은 130편, 박사학위논문은 14편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학위논문의 생산량은 2000년대 이전에 비해 4배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곧 대학원 교육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30개 대학에서 석사학위논문을, 13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생산하였다. 학위논문의 생산 규모는 중앙대, 연세대·성균관대, 부산대, 충남대의 순서이고, 일반대학원에서 생산한 학위논문은 939편이고, 교육대학원에서 생산한 논문은 500편으로 약 2 : 1의 비율이다.

학위논문의 연구분야를 보면, 정보서비스, 정보학, 도서관 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서지학의 순이다. 200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정보서비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박사학위논문의 연구분야는 정보학, 정보서비스, 도서관경영, 자료조직의 순이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의 연구분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별 연구경향의 특색도 살필 수 있었다. 대학에 따라서 연구분야에 따른 학위논문의 생산량에도 편차가 많았는데, 특정 분야의 연구가 한 편도 없는 경우는 전공 교수의 부재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된 결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문헌정보학 연구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행본과 학술지논문을 분석할 후속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